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 FTA 시비는 불법 아니다

한 스님이 물었다.  
“무엇이 비로자나불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흰 낙타는 왔는가?”  
그 스님이 대답했다.  
“왔습니다.”  
조주 스님이 말했다.  
“끌고 가서 풀을 먹여라.”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불확실한 합의는 급히 서두를 필요 없다. 합의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스승 없이 깨달은 지(智)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내가 그대에게 가르친 적이 없지 않는가?”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가장 친절한 1구입니까?”  
조주 선사야 말했다.  
“떨어졌느니라.”

問 如何是親切一句 師云 話墮也

問 如何是毗盧師 師云 白駝來也未 云來也 師云 牽去 餵草

問 如何是無師智 老僧不曾教 關黎

비로자나불은 정법을 상징한다. 우리가 무엇을 하다가 어떤 법칙을 발견하면 그것은 비로자나불의 법칙을 발견한 것이다. 예컨대, 석수장이 돌을 쪼개는 방법을 터득하였거나, 목수가 집을 짓다가 특이한 법칙을 발견하였다면 비로자나불의 법칙을 발견한 것이다.

진정한 선사라면 가르쳐도 가르친 것이 없다고 말한다. 나도 없고, 가르칠 법도 없고, 가르침을 받을 자도 없는 것이 정법(正法)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최후에 말했다. “나는 한 마디로 설하지 않았다”고.

선불교에서 일구(一句)는 핵심과 통하는 한 마디이다. 선(禪)의 요점이고, 도(道)와 통하는 외마디이다. 선객들은 선사의 이 일구를 듣고 즉석에서 깨닫는 경우가 많다. 선사의 한 마디는 그만큼 함축적이고 본질과 통하면서 폐부를 찌르기 때문이다.

조주 스님이 “낙타가 도착했으면 풀을 먹여라” 하고 말한 것은 당연한 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곧 비로자나불이요 하고 말한 것이다.

조주 선사는 평생 제자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줬다. 그러나 선사는 역지사지 제자에게 가르친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가히 정법을 말한 것이다. 지혜는 본래 스스로 터득하는 것이다. 가르침은 중요하지 않다. 가르침을 받는 자가 중요하다. 깨닫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자기에게 달려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조주 선사는 그야말로 답답한 사람의 가슴을 뚫어주고, 본질과는 일맥상통하고, 도에 근접한 한 마디를 던진 것이다. “떨어졌다”는 말은 말 그대로 알아들으면 된다. 남떠러지에 떨어진 것이고, 지옥에 떨어진 것이고, 남보다 뒤떨어진 것이고, 도에 천부당만부당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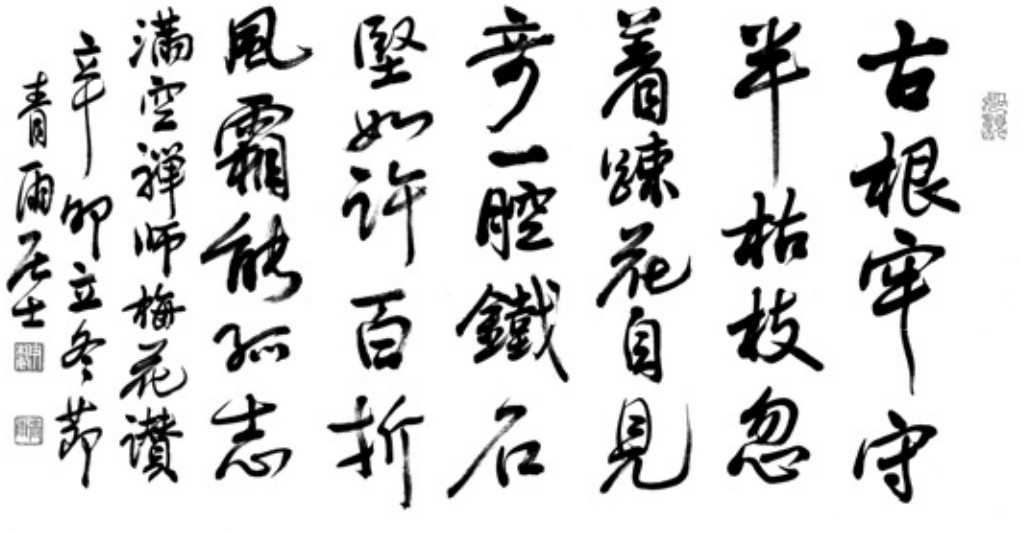
누구든지 당연한 말을 하면 그가 곧 비로자나불이다. 특히 풀 먹일 때가 되어 “끌고 가서 풀을 먹여라”라고 한 일상적 당연한 말은 곧 비로자나불의 법이다. 그러나 FTA 합의가 옳다든지, 아니면 그르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비로자나불의 법이 아니다. 그 합의는 옳을 수도 있고 그를 수도

스승은 단지 진리를 알려줄 뿐이다. 지혜를 터득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스승 없이 지혜를 터득하는 것이다. 이것이 선사상(禪思想)이다.

이 한 마디는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에게 큰 빛이 되고 확실한 지점이 된다. 참으로 열심히 수행하고 도와 진리를 찾는 자라면 이 말에 머리가 트일 것이고, 3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듯 가슴이 시원해질 것이다. 그는 비로소 저 언덕에 이른 것이다.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선사의 이 한마디가 참으로 대단한 위력이 있음을 안다. **무불선원 선원장**

### 운상민의 서화산책 매화찬

## 백번 꺾는 풍상에 절개 지키네



古根牢守 半枯枝忽 着疎花自見 奇一腔鐵石 堅如許百折 風霜能如志 滿空禪師梅花讚

古根牢守 半枯枝忽 着疎花自見 奇一腔鐵石 堅如許百折 風霜能如志 滿空禪師梅花讚

牢: 굳을 뒤, 우리 뒤  
忽: 갑자기 흘  
疎: 성길 소  
腔: 속빌 강  
鐵: 쇠 철  
孤: 외로울 고

청신만풍경기학반고  
모공상여일소고근  
우입사능허강화  
거대동고백철저지뢰  
사절한지절석견출수



서예가·동아미술상 수상

### 선경 해제 한국선과 선어록

### 승만경

## 여래장 사상을 천명한 경전

《승만경(勝鬘經)》은 《승만사자후경(勝鬘師子吼經)》(사자후방광경(師子吼方廣經)) 《승만대방편방광경(勝鬘大方廣經)》 《승만사자후일승대방편방광경(勝鬘師子吼一乘大方廣經)》 등으로 불린다. 《승만경》은 초기 대승경전으로부터 다져진 대승의 교리가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전개되는 단계에 있으면서 반야사상을 바탕으로 한 여래장사상의 근본경전으로 간주되고 있다.

구나발타라가 5세기 중반에 번역한 《승만사자후일승대방편방광경》에 의하면 그 교리에서 대승의 입장에서 모든 사람에게 본래부터 일체중생에게 여래의 성품이 동일하게 구비되어 있다는 여래장 사상에 대하여 설한다. 이에 중생의 본성은 청정하기 때문에 그 본성이 드러나면 법신이 출현하고 성불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체중생이 그대로 여래장이라는 것을 세 가지 측면 곧 여래의 3종자성의 입장에서 교리가 전개된다. 첫째는 여래법신이 편만하다는 것인데 이것은 여래장이 존재하는 근거이다. 둘째는 여래진여가 무차별하다는 것인데 이것은 중생과 여

승만 부인과 그 권속들은 부처님을 진건하여 수기를 받는다.

제2 십수장(十受章)은 수기를 받은 승만 부인이 열 가지 서원을 세운다. 오늘날부터 깨달음에 이를 때까지 계율을 지니는 것, 어른에게 오만하지 않는 것, 중생에게 화를 내지 않는 것, 질투심을 지니지 않는 것, 인색한 마음을 지니지 않는 것, 재물을 남에게 보시하는 것, 중생을 위한 사십법을 행하는 것, 불쌍한 사람들을 보살피는 것, 불의를 응답하지 않는 것, 정법을 지키겠다는 것 등이다.

제3 삼원장(三願章)은 중생을 안온케 하는 큰 지혜를 얻는 것, 중생을 위하여 끝까지 가르침을 설하는 것, 신명을 바쳐 정법을 수호하겠다는 것 등 세 가지 대원을 세운다. 제4 십수장(攝受章)은 정법을 설수하는 의의와 그에 대한 비유, 그리고 정법을 설수하는 것이 곧 육바라밀임을 설명한다. 이에 승만 부인은 부처님으로부터 정법을 설수하는 것은 곧 이익과 복덕과 과보가 수반되는 것이라는 진법을 받는다. 제5 일승장(一乘章)은 정법을 설수하는 것이야말로 그대로 대승임을 설명한다. 성문·연각·출세간의 선법도 모두 대승을 의지하여 지라나고 머무르는 것임을 설명한다. 나아가서 잠재적인 네 가지 번뇌를 끊고 일승의 법에 나아갈 것을 설명한다.

제6 무변성정장(無變聖諦章)은 성스러운 진리는 성문이나 연각의 유한한 공덕을 초월한 것으로 여래·응공·등정각이 성취하는 것임을 설명한다. 제7 여래장장(如來藏章)은 성스러운 진리는 곧 여래장을 가리키는 것이라 설명한다. 제8 법신장(法身章)은 유위법의 성스러운 진리 네 가지와 무위법의 성스러운 진리 네 가지를 말하고, 이 가운데 무위법의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야말로 여래·응공·등정각의 법신이 터득하는 경계임을 설명한다. 제9 공의은 복진실장(空義隱覆眞實章)은 모든 번뇌를 벗어난 공여래장은 오직 여래만이 터득하는 경지임을 설명한다. 제10 일제장(一諦章)은 사성제 가운데 고성제·집성제·도성제를 벗어난 것만이 제일의제라고 설명한다. 제11 일의장(一依章)은 위에서 말한 제일의제는 곧 멸성제임을 설명한다. 제12 전도진실장(顛倒眞實章)은 상견과 단견은 전도된 견해이고, 열반의 상·락·아·정이 청정한 견해를 설명한다. 제13 자성정정장(自性淸淨章)은 여래장은 여래의 경계로서 본래부터 번뇌에 물들지 않는 청정한 성품을 설명한다. 제14 진자장(眞子章)은 진정한 선남자 선여인은 대승에 들어가고 깊은 진리를 성취하며 깊은 지혜를 따르는 자임을 설명한다. 제15 승만장(勝鬘章)은 승만부인 및 그 권속들이 부처님으로부터 찬탄을 받고는 진으로 돌아와 다른 사람들에게 대승법을 전도한다. 부처님은 제석천과 아난에게 위의 15장에 걸친 가르침은 모두 대승 법이므로 잘 수지하고 독송할 것을 부탁한다.

### 승만부인이 10대수 세위 실천 발원하고 반야사상 바탕... 일체중생 그대로 여래장 <유마경>과 함께 재가득도의 신앙 표방 붓다. 제석천에 승만부인 설법 수지 당부

래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이다. 셋째는 여래중생이 일체중생에게 존재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여래장의 발현을 가리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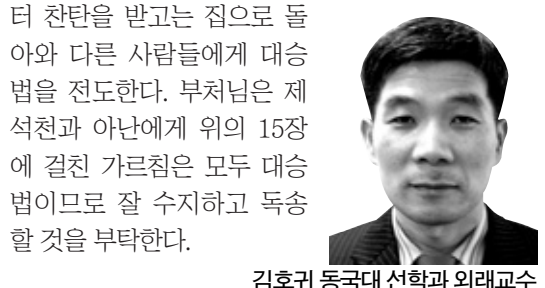
승만 부인과 그 권속들은 부처님을 진건하여 수기를 받는다. 제2 십수장(十受章)은 수기를 받은 승만 부인이 열 가지 서원을 세운다. 오늘날부터 깨달음에 이를 때까지 계율을 지니는 것, 어른에게 오만하지 않는 것, 중생에게 화를 내지 않는 것, 질투심을 지니지 않는 것, 인색한 마음을 지니지 않는 것, 재물을 남에게 보시하는 것, 중생을 위한 사십법을 행하는 것, 불쌍한 사람들을 보살피는 것, 불의를 응답하지 않는 것, 정법을 지키겠다는 것 등이다.

때문에 이 여래장사상은 불성과 동일한 개념으로서 선종에 수입돼 달마로부터 비롯된 조사선의 사상적 배경인 본래성불의 근거가 됐다. 이것은 반야공관과 결합돼 무분별과 무집착을 바탕으로 하여 일상에서 깨침의 전개와 구현을 겨냥하게 됐다. 때문에 여래장은 돈오성불의 바탕으로서 그 본질은 곧 자성(自性), 인(因), 과(果), 업(業), 상응·결합(相應·結合), 행·현현(行·顯現), 분위차별(分位差別), 변일체처(遍一切處), 불변이(不變異), 무차별(無差別)의 10가지 의미를 그 속성으로 한다. 나아가서 그에 대한 비유로는 시든 꽃잎 속에 나타나 있는 화불(化佛), 갖가지 별들의 끝, 나락의 곁집 속의 쌀알, 쓰레기 속에 감추어진 진금, 땅속에 파묻혀 있는 보물, 열매 속에 감추어져 있는 씨앗, 누더기옷 속에 싸여 있는 보상(寶像), 빈천한 여인이 잉태하고 있는 왕자, 모험들 속에 들어 있는 금상(金像) 등 아홉 가지 연급한다.

제6 무변성정장(無變聖諦章)은 성스러운 진리는 성문이나 연각의 유한한 공덕을 초월한 것으로 여래·응공·등정각이 성취하는 것임을 설명한다. 제7 여래장장(如來藏章)은 성스러운 진리는 곧 여래장을 가리키는 것이라 설명한다. 제8 법신장(法身章)은 유위법의 성스러운 진리 네 가지와 무위법의 성스러운 진리 네 가지를 말하고, 이 가운데 무위법의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야말로 여래·응공·등정각의 법신이 터득하는 경계임을 설명한다. 제9 공의은 복진실장(空義隱覆眞實章)은 모든 번뇌를 벗어난 공여래장은 오직 여래만이 터득하는 경지임을 설명한다. 제10 일제장(一諦章)은 사성제 가운데 고성제·집성제·도성제를 벗어난 것만이 제일의제라고 설명한다. 제11 일의장(一依章)은 위에서 말한 제일의제는 곧 멸성제임을 설명한다. 제12 전도진실장(顛倒眞實章)은 상견과 단견은 전도된 견해이고, 열반의 상·락·아·정이 청정한 견해를 설명한다. 제13 자성정정장(自性淸淨章)은 여래장은 여래의 경계로서 본래부터 번뇌에 물들지 않는 청정한 성품을 설명한다. 제14 진자장(眞子章)은 진정한 선남자 선여인은 대승에 들어가고 깊은 진리를 성취하며 깊은 지혜를 따르는 자임을 설명한다. 제15 승만장(勝鬘章)은 승만부인 및 그 권속들이 부처님으로부터 찬탄을 받고는 진으로 돌아와 다른 사람들에게 대승법을 전도한다. 부처님은 제석천과 아난에게 위의 15장에 걸친 가르침은 모두 대승 법이므로 잘 수지하고 독송할 것을 부탁한다.

경전 전체는 1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 여래진실의공덕장(如來眞實義功德章)은 파사익왕과 말리부인은 아유사국으로 시집간 딸인 승만 부인에게 보리심을 내도록 편지를 보낸다. 이로써



김호국 동국대 선학과 외래교수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 옥천범음대학 2012학년도 신·편(학점은행제)입생 모집

고등교육법에 의한 정규대학이 아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령에 의한 학점은행제 교육 훈련기관

1969년 설립한 옥천범음회로 시작되어 1973년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범패”로 지정, 1987년 “영산재” 보존회로 단체 지정 되어 2009년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되었습니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행하는 학점은행제를 도입하여 불교의식과 불교음악, 불교무용의 전문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인재 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일반인 및 학생을 모집합니다.

신입학, 수료과정				
모집학과	교수내용	요일	시간	모집인원
상주권공	상주권공과정	월	오후 1~7	30
각배	각배과정	목	오후 1~7	30
영산	영산과정	금	오후 1~7	30
불교무용(작법)	바라춤/나비춤	수	오후 1~7	30
불교의식(실기)	시련/대령/관육상단/영단	월	오후 1~7	30
불교의식(이론)	불교의식	화	오후 1~4	재학생 졸업생

학 점은 행 제				
모집학과	교수내용	요일	시간	모집인원
영산재의례절차	상주권공과정	월	오후 1~7	30
범패실습I	각배과정	목	오후 1~7	30
영산재의례절차II	영산과정	금	오후 1~7	30
작법실습	작법과정	수	오후 1~7	30
영산재의불교 예술적특징	불교음악&무용	화	오후 1~4	30

편 입 학				
모집학과	교수내용	요일	시간	모집인원
각 배	각배과정	목	오후 1~7	약간명

■ **응시자격**  
 ◆ 수료과정 : 승려 및 포교사, 법사, 재가불자, 관력학(음악, 무용과) 등 교역자 및 일반인  
 ◆ 학점은행제과정 :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소지자(대학교 중퇴자 가능)기 타 시간제 등록 및 학점은행제 타 기관 수강자

◆ 편입학과정 : 동일계열 상주권공 수료자

■ **제출서류**  
 ◆ 수료과정 :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1부, 최종학력증명서(예정)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반명함판 사진 3매, 승적증명서 및 수계증 사본 1부, 원서대 및 전형료 50,000원  
 ◆ 학점은행제과정 :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1부, 최종학력증명서(예정)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반명함판 사진 3매  
 ◆ 편입학과정 :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1부, 최종학력증명서(예정)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반명함판 사진 3매, 승적증명서 및 수계증 사본 1부, 동일계열 상주권공 수료증 사본

■ **전형일정 : 2012년 1월 16일 ~ 2월 24일**

■ **원서교부 및 인터넷 접수처** : 본 교 행정처 및 홈페이지 접수

■ **합격자발표** : 본 교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특 전**  
 1. 재학생 중 학사변동에 이상 없을 경우 4년 과정을 정상수료시 중단이 실시하는 습의교육 및 합동등도 수계산림에 참가할 수 있는 요건을 부여  
 2. 출가승려(법계 미품수자)로서 학사변동에 이상 없을 경우 4년 과정을 정상 수료 시 태고종승려에 한하여 중덕법계 품수 자격을 부여 (단, 입학시 승려에 한하며 재학중 출가자는 제외)  
 4. 졸업자에게는 대한민국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 회원 및 준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기능 인정되면 전수생 지정  
 5. 성적우수자에게 각종 장학 혜택 부여, 국내외 공연 시 우선선발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 옥 천 범 음 대 학

120-15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봉원동 1번지 봉원사 내 Tel : 02)392-3234, Fax : 02)392-3239 홈페이지 : www.okchunbud.kr

## 옥 천 범 음 대 학

### 2011년 동계방학 특강안내

과목	생전예수재	법 고
교수	마일운 스님 (영산재보존회 회장)	이기봉 스님 (옥천범음대 학장)
기간	12월 19일~ 2012년 1월 17일(5주) (매주 월요일, 수요일)	12월 20일~ 2012년 1월 18일(5주) (매주 화요일)
시간	오후 3시~5시 (2시간)	오후 1시~5시 (4시간)

※ 과목별 수업요일과 시간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접수방법 : 특강 수강신청서 1부 (행정실)  
 접수문의 : 02) 392-3234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부설  
 옥 천 범 음 대 학 학 장 이 기 봉 합 장